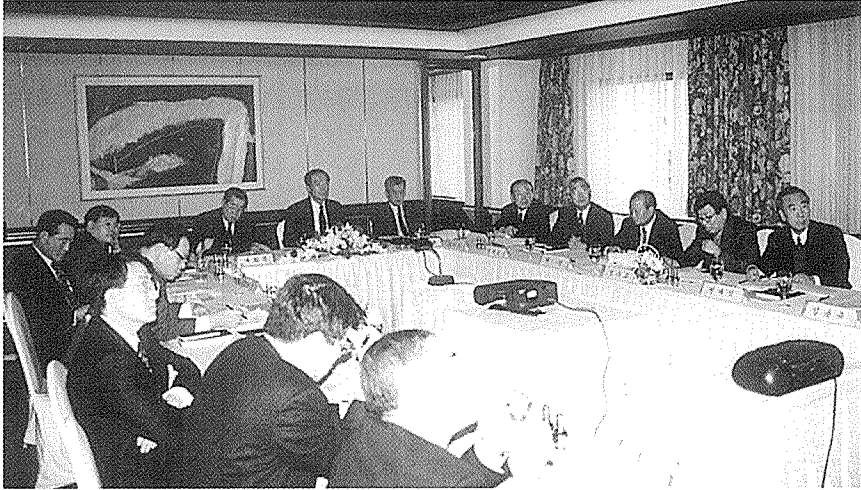


## 제59차 이사회



제59차 이사회가 2002년 12월 26일(목) 16:00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동 이사회에서는 2건의 보고사항과 5건의 의결사항이 심의되었다.

주요 보고안건으로는 피폭관리비 청구업무 수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검토·개선하기 위한 『피폭관리비 청구 개선(안)』이 있었으며, 주요 의결안건으로는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있었다.

## 2002년 동위원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



## 협회동정

협회는 2002년 12월 30일(금) 11:00시 협회 회의실에서 『2002년 동위원소 안전관리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수여식』을 갖고 도레이새한(주)의 이용준 등 4명에게 표창장과 호진산업기연(주) 등 14개 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협회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조성 및 안전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하므로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현장의 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회원사를 대상으로 동위원소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시상하고 있으며 「2002년도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연차대회」 등 협회 주관 주요 사업 및 행사 등에 적극 협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시상하였다.

올해 동위원소 안전관리 수상자는 ▲도레이새한(주) 이용준 ▲현대원자력(주) 박병목 ▲일진방사선서비스(주) 박재덕 ▲고려대학교 이부형 등 4명이며

감사패 수상기관은 ▲광원교역(주) ▲상정인터내셔널(주) ▲원자력의학원 ▲테크밸리(주)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환경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호진산업기연(주) ▲핵심기술(주)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원자력(주) ▲(주)대동기재 ▲서울방사선서비스(주) ▲(주)삼영유니텍 등 14개 기관이다.

## 유관기관 동정

### 과학기술부

#### 제7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한·중 양국은 2002년 12월 4일(수) 『제7차 한·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회의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였다.

한국의 과학기술부 차관(李昇九)과 중국의 과학기술부 부부장(마송덕, 馬頌德)을 수석대표로 양국의 과학기술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한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 관심분야의 협력활성화 방안 등 양국의 이익증진을 위한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은 본회의에 앞서 과학기술협력협정 1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간 기술협력활동을 회고하고 그간의 과학기술활동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연구개발정책, 중점 연구사업 및 연구개발지원체제 등 양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원자력안전기술원

### 중국복사환경감측기술중심과 MOU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은 10일 중국환경부 산하 복사환경감측기술중심(RMTC)과 한국-중국 간 환경방사능 감시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환경방사능 감시정보 교환 및 전문가의 상호 파견, 환경방사능 자동감시 장비 및 기술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중 간 환경방사능 감시 및 방사선비상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 방사성폐기물 유리화기술 첫 상용화 착수

우리나라가 원전(原電)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양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는 폐기물 압축 기술을 개발,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에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최양우)은 25일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유리화(琉璃化)하는 기술을 개발완료하고, 현재 건설 중인 울진 5~6호기에 세계 최초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진 5호기 원전이 가동되는 2007년부터는 방사성 폐기물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유리화기술이란 방사성 폐기물을 용융상태의 유리와 혼합한 뒤 고열로 가열, 부피를 줄인 뒤 안정된 유리고체 상태로 만드는 기술을 말한다. 유리화된 유해 물질은 극한 조건에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누출 위험도 낮은 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시작, 99년 이후 3년간 현대모비스와 프랑스 SGN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유리화 기술을 개발해왔다.

전세계적으로 미국과 프랑스가 유리화기술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상용화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개발한 유리화기술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